

평가내용 숙지 후 핵심어 이해해야 빠른 결과물 작성 위한 사전 준비도 필요

교육부는 2025년 2학기부터 ‘과제형 수행평가’와 ‘암기형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진행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비하려면, 일단 평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기 초에 과목별 평가 계획을 공지합니다. 제시된 평가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 범위의 핵심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어의 뜻 축법이 틀리거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감점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후 수업에서 평가 일정과 평가 요소 등 세부 내용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결할지 사전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아무리 결과물이 우수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감점을 피하기 어려우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둬야 합니다. 특히 손이 느리다면 과제 수행 도구에 익숙해지길 권합니다. 경기 양평중 정재은 교사는 “컴퓨터나 태블릿 PC로 결과물을 작성할 땐,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면 좋다. 학교에서 준비한 도구가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손에 익은 필기도구나 문구를 준비해두는 것도 추천한다. 한 왼손잡이 학생은 왼손용 가위를 준비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조언합니다. @

More tip

수행평가 주제 선정·자료 활용

주제를 학생이 정하는 경우, 읽은 책이나 논문 포털에서 해당 교과 또는 핵심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또 과제에 활용하는 자료는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경기 은행중 이예은 교사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계청, 국제공공아카이브 등 기관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길 추천한다. 이때 한글 검색어뿐만 아니라 영어 검색어를 활용하면 보다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수업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하는
수행평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손이 느린
아이, 어떤 연습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취재 최은정 리포터 lagom@naeil.com
도움말 이예은 교사(경기 은행중학교)
정재은 교사(경기 양평중학교)